

거지방·오픈런·번아웃...우리 앞에 도래한 '진짜' 현실

소설, 한국을 말하다

장강명 등 21명 지음

“오래 머물면 새벽에 간한다. 조심해.”

전선란의 소설 '새벽 속'에 등장하는 대사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 작품 속 인물은 새벽배송에 나선 청춘들. 작품에는 "새벽운동처럼 일하고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학업과 본업에 매진하는" 사람들과 작업 도중 갑작스레 쓰러진 이들의 허무한 죽음, 이를 방관하고 은폐하는 자들의 모습까지 담겼다.

재벌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로 스타 강사가 된 주인공이 등장하는 김동식의 '그분의 목숨을 구하다'도 인상적이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의 생명의 은인이 됐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그냥 돈을 요구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하실 건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돈, 번아웃, 사교육, 자연인, 거지방, 고불가, 중독, 노동, 가족...

'소설, 한국을 말하다'는 21인의 작가가 소설로 써 내려간 '대한민국 해부도'다. 수록작들은 한 일간지에 연재된 소설로 주제와 소재, 이야기의 키워드는 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했다. 전제는 '한국'이라는 시공간을 함께 지나는 '지금, 여기'의 '우리'를 드러낼 것. 기획자는 "애초 인간과 사회를 탐구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게 소설이 하는 일 중 하나고, 소설가들은 늘 인간의 마음을 유영하고 있기에" 작가들과의 협업이 가능했다고 말한다.

4000자 내외의 초단편 소설이지만 담긴 이야기는 깊



21명의 작가가 참여한 '소설, 한국을 말하다'는 번아웃, 노동, 새벽배송, 사교육 등 다양한 키워드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묘사한 작품을 담고 있다. 사진은 사교육 현상인 학원가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고 넓다. 모두 만만찮은 내용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 터라 아주 짧은 글 안에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반전이 담겨 있고 눈물과 웃음, 탄식이 공존한다.

첫 글인 장강명의 '소설 2034'부터 눈길을 끈다. '소설, 한국을 말하다'의 2034년 버전을 준비하는 신문사 이야기를 다룬 소설은 작품집의 '프롤로그'로 제격이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처지를 보여준 백기홍의 '빈의 두번째 삶'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다. 돈 벌러 온 한국에서 힘든 나날을 보낸 베트남 노동자의 눈물이 어른거리는 작품으로, 자신의 안위 대신 따뜻함을 보여준 고용주의 오도바이를 지키려는 마음이 뭉클하다.

과학 저술가 박재식은 전공 분야를 살려 AI를 소재로 한 '제42회 문장 생성사 자격면허 시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가져올 이야기들에 대해 말하며 부부간의 '섹스리스'에 대해 다룬 정진영의 '가족끼리 왜 이래'도 눈길을 끈다.

날카로운 글 만 있는 건 아니다. '팬심'을 키워드로 삼은 이경란의 '덕질 삼대'는 유쾌하다. 트로트 경연에 등장한 가수 '호걸'을 좋아하는 할머니, '송골매'의 오래된 팬인 엄마, 아이돌 그룹 NBT 팬클럽 회원인 손녀까지 '좋아하는 사람'에 진심인 삼대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반려동물'을 다룬 정이현의 '남겨진 것'은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와 반려견 '우동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며 '현대적 삶과 예술'을 주제로 한 김영민의 '변기가 질주하오'에는 위대한 예술가의 세계적인 작품인 '변기'를 들고 도망치는 남자와 추격자들이 등장한다.

책에서는 그밖에 '오픈런'을 다룬 손원평의 '그 아이', '중독'을 키워드로 삼은 강화길의 '회원의 주인', '콘텐츠 과잉'이 소재인 구병모의 '상자를 열지 마세요' 등을 만날 수 있다. <은행나무-1만6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레이저스=현대 사회의 억압 속에서 개인이 자기실현을 이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스물아홉 살 기운 또한 마찬가지다. 그는 화가로서 큰 뜻을 품고 살아왔지만 전시회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가족들은 평범하게 살 것을 강요한다. 기운은 화가로 사는 것의 의미를 고민하던 와중 고등반던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린다. 이후 학창시절 일진 우두머리인 '상민'을 만나 친구가 될 것을 제안받던 기억을 회상하고, 삶의 '부조리'에 대해 고민한다. <몽상가들-1만9000원>

▲친일파의 재산=백성들을 넘긴 대가로 당시 83만 원이라는 거액의 국채증서를 받은 이재면, 동학혁명을 진압하고 '을사오적'에 '경술국적'까지 친일 2관왕을 달성한 박세준 등 매국의 아이들들과 이들이 부를 축적한 방식을 다룬다. 1925년 당시 한국인 부자 2위로 기록된 이완용이 경성 최대의 현금 부호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조선산업회 일원으로 조선 수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조진태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북피움-2만2000원>

▲로빈 니블렛의 신냉전="미국이 지은 집에서 중국이 지은 밥을 먹는 한국"이라는 말은 신냉전시기 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을 빗댄 말이다. 국가안보를 의지하고 있는 미국과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있는 중국 간 패권경쟁은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왕립국제



문제연구소에서 채담하우스를 15년간 이끈 저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신냉전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매일경제신문사-2만원>

▲RNA 특강=RNA-LNP 등에 기반을 둔 치료제와 새로운 백신 개발이 성과를 올리고 있다. RNA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mRNA백신 기술 개발의 성공 이후,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유행하면서 의학업계에 다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0년이 DNA시대였다면 '다가올 30년은 RNA 시대'라는 문구 아래 고분자 화학물질 RNA의 정체를 밝힌다. <사이언스북스-1만7900원>

독자 마음 공명시키는 중국 현대시인 24명의 시 이야기

시는 살아 있다

성민업 지음

"비열은 비열한 자의 통행증, / 고상은 고상한 자의 묘비명, / 보아라, 저 도금한 하늘에, / 죽은 자의 굽은 그림자(倒影)가 득히 나부낀다."

1949년생인 중국 베이징(北平) 시인이 쓴 '회담'(回窗)의 1연이다. 1976년 4·5천안문 사건 때와 1989년 6·4천안문 사건 때 광장에 나붙고, 군중에게 의해 낭송된 시다. 당시 해외 체류중이던 시인은 이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망명을 하게 된다. 2005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시인은 저자의 '해외망명 생활이 시 스타일에도 변화를 가져왔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외국생활을 하면서 모국어에 더욱 가까워졌다. 모국어는 작가에게 숙명적인 것이며 시인의 생명과도 같다." 문학평론가 성민업 서울대 중문과 명예교수가 들려주는 중국 현대시인 24명의 시 이야기다. 네이버 프리



미엄 콘텐츠 '성민업의 문학 이야기'에 업로드 했던 글 가운데 35편을 가려내 다듬었다. 베이징과 스즈, 슈팅, 란란 등 20-21세기 중국 시인들의 이름과 작품은 생략하지만 하다. 1917년 후스(胡適-1891-1962)가 '백화'(白話-구어로서의 중국어)로 시 8편을 발표한 때를 중국 현대시의 시작으로 본다.

'시를 찾고 그 시가 더욱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스스로 맡은 임무라 여기는 저자는 시 한편 한편을 꼼꼼하게 읽으며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말로 직접 번역을 했다. 중국 최초 여성 건축가이자 시인·작가인 린후이인(林徽因-1904-1955)이 쓴 시 '너는 인간 세상의 4월의 날'(1934년 작)의 경우 원문 '四月天'을 저자는 '4월'이나 '4월의 하늘'이 아닌 '4월의 날'로 옮겼다. 시인이 어머니로서 인간세상에서 '진정한 소생의 시간'(두 살 난 아이)을 발견한 순간의 감격을 표현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저자는 중국 시인의 시를 소개하며 시가 창작된 배경을 독자들에게 들려준다. "다시 케임브리지와 작별하며"(1928년 작)를 쓴 쉬즈모(徐志摩-1897-1931)는 23살이던 1920년 16살 린후이인을 런던에서 처음 만

나 교류했는데, 1931년 린후이인의 건축 강연회에 참석하려다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 저자는 독자들의 시 감상을 돕기 위해 쉬즈모의 연애시 '눈꽃의 기쁨'(1924년)과 '우연'(1926년)을 원작으로 한 합창단 동영상과 영화 '사랑의 스잔나' 주제가를 QR코드를 첨부해 놓았다.

신간은 중국 현대시와 역사, 인물을 함께 어우러지게 해 생소한 중국 현대시의 세계로 독자들을 이끈다. 스즈의 '미래를 묻는다'(1968년)와 베이징의 '회담'(1976년), 구청의 '한 세대 사람들'(1979년), 슈팅의 '상수리나무에게'(1979년), 뒤뒤의 '거주자'(1989년) 등과 같은 시에서 중국 현대시의 저력을 느낀다. 하이즈의 '바다를 바라보는, 꽃피는 봄날'은 2020년 가요로도 불러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던 우한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저자는 독자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공명'을 중시한다. 그래서 '공명은 시를 시인의 것이면서 동시에 독자의 것으로 만들어 준다. 공명을 일으킨 우리 모두는 시인입니다'라고 말한다. <문학과지성사-1만8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내 자전차가 좋아=처음으로 두발자전거를 탈 때 긴장과 스릴을 묘사한다. 두 발 타기를 가르쳐주는 아버지는 휘청거리는 아이를 격려하고 붙잡아주며 계속 나아가 갈 용기를 가르쳐준다. 페달을 힘껏 밟아도 흔들리는 자전거를 보며 아이는 '멍청한 자전차'라고 불멘소리를 하지만, 이윽고 아버지의 격려를 받으면서 노후를 터득해 나간다. <주니어RHK-1만5000원>

▲택배 전쟁=택배 일을 시작한 아빠와 연호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할 예의범절을 다뤘다. 연호는 유튜브 이기쁨이 먹는 신기한 색종이, 거봉 쥬얼 영상 등을 보고 자신도

이를 먹고 싶어 한다. 택배로 간식을 주문하지만 엄마는 사주지 않아 심통이 난다. 다음날 택배 하나가 분실됐다는 연락을 받으며 소통이 일어난다. <꿈타-1만2000원>

▲아버지의 하얀 이꽃=1960년대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 아버지들의 삶을 그림책에 담았다. 온통 새까만 탄광촌에서 환하게 웃는 '봄음이'가 태어난다. 갸름한 탄광막장에서 일하며 가난과 싸우는 아버지는 봄이이를 성심으로 돌본다. 봄음이의 생일 날 갑작스럽게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엄마는 손을 잡고 무너진 탄광 입구로 그를 이끈다. <머스트바-1만6000원>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9. 2(월)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푸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8. 26(월)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목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